

소 현 희
(한솔동물병원 원장/수의사)

육계 질병사례와 농장관리

생 산원가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시장가 격형성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사육비가 지연되거나 혹은, 입추가 지연되어 한숨짓는 육계농가에게 우선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육계 입추 후 출하 시까지의 30~35일간은 짧은 기간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사육기간을 길게 느껴지게 하는 여러 증상(질병)들은 외부요인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지만, 내 실책으로 유발되기도 한다. 아래 서술한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여, 내 농장의 사육기간이 쉽게 지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1. 탈수증, 요산침착증 사례

30,000수 규모의 계열사 사육농가로 연간 사육성적이 늘 상위권이었는데, 최근 3파스동안 연속해서 3~7일령 병아리의 탈수증과 요산침착증 증세를 보였다. 이러한 병아리 탈수증은 약추를 발생시켜, 총아리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출하시 평균체중을 높이기 어려웠다.

기존에 이런 병역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아리 자체의 문제를 의심했었으나, 3파스 연속해서 늘 같은 증상이 나오면서 내부적

인 요인을 확인하게 되었다. 초기 탈수증상에 의한 약추 발생 외에 사육 후기에 폐사나 설사 등의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므로, 농장에 상재하는 질병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입추시 온·습도 관리도 상당히 잘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다른 부분을 확인하던 중에 농장주가 몇 달 전 계사에 보온덮개를 더 씌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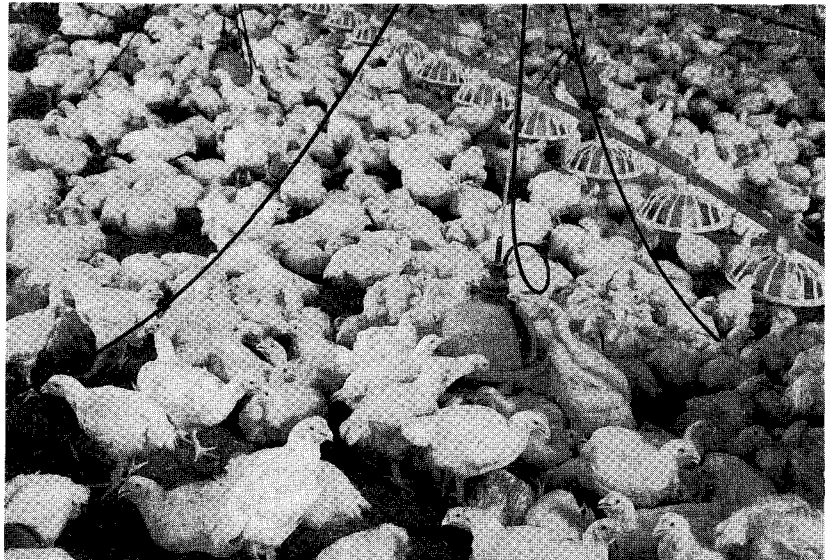
조명은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온덮개를 더 씌어 상대적으로 계사 내부는 더욱 어둡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두운 환경에서 병아리는 물을 바로 찾을 수 없었기에, 3~7일령 사이에 탈수증과 요산침착증으로 인한 초기폐사가 많았고, 총아리도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전구를 보강하여 다시 입추를 하게 되었다. 입추실이 밝았던 이번 파스에는 초기 탈수증과 요산침착증이 유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복수증 사례

증상의 정도차이는 있었지만, 매 파스마다 후기에 복수증 증상을 나타내는 농장이 있었다. 처음에 이 농장을 접했을 때는 환기 부족으로 생각했는데, 환기가 잘 되는 상황에서도 복수증이

계속 발생하여 다른 요인을 확인하게 되었다.

계군 관리에 있어서, 환기부족 외에도 복수증 발생을 증가시키는 인자 중의 하나가 저온 스트레스인데, 이 농장은 습관적으로, 입추 전 충분히 가온, 가슴을 하지 않고, 입추와 동시에 열풍기를 가동시키는 입추 관리를 해왔던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병아리를



를 쉽게 기르는 경향이 있어서 병아리가 저온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저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병아리는 열을 발생하기 위해 대사량이 많아지므로, 산소 요구량도 커지게 된다. 이는 곧 우심실에 부담을 주어 복수증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농장주에게 설명하였다.

농장주는 기존에도 간혹 배에 물이 찬 닭이 나왔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물론, 복수증의 증상은 복강 내 액체가 차있는 닭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외부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폐사계도 부검하다 보면, 우심실이 비대해지고 액체가 심낭에 차있는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복수증이다.

입추와 육추시 온도가 낮았다고, 꼭 복수증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증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자를 하나,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총아리, 약추 발생 사례

평소 연간 사육성적이 꾸준히 좋았던 40,000수 규모 육계 농장에서 며칠 전 병아리를 입식하게 되었는데, 초기 폐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총아리가 심각하게 형성되어 필자에게 무슨 병이 아닌가를 의뢰하였다.

부검 소견으로는 소화장기의 위축과 사료 섭취불량 외에 다른 질병소견은 관찰할 수 없었다. 이 농장과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동일 사료와 동일 부화장 병아리를 확인하여 보았지만, 이 농장과 공통 소견은 찾을 수가 없었다.

외부요인보다는 농장 내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장주는 매우 추운 날씨에 입추하면서 온도를 제대로 못 올려주었음을 설명하였다. 입추 후, 온도가 낮아 병아리가 잘 퍼지지 않고 멍쳐서, 물과 사료를 원활히 섭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외에 이러한 증상을 유발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 또

한, 병아리 때 물 섭취를 원활하게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벽면에 흐르는 물을 찍어 먹는 닭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병아리 때 잘 퍼지지 않고, 벽면의 물을 찍어먹던 습관이 성장해서도 유지됐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급수, 급이가 제대로 안되었던 일부 계군의 성장이 위축되어, 일령이 늘어나면서 층아리가 심화되었으며, 불량한 소화 기능으로 약무를 계속 유발 시켰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농장주는 병아리, 사료, 질병 등을 의심해서 필자에게 의뢰했는데, 농장 내 문제에서 비롯된 사례가 의외로 많았다.

다른 예를 들자면, 매 파스마다 불균일한 균일도로 고민해 오던 농장주의 사례이다. 농장주의 설명에 의하면 병아리 때는 고르게 잘 성

장해오다가, 커가면서 층아리가 심각하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영양제, 항콕시딴제, 항균제 등을 투약해 보았으나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추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농장의 문제점은 급수량이 모자라서 유발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병아리때는 음수량이 작아 문제가 없었지만, 닭이 커지면서 힘센 닭만이 충분한 음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증상들이 꼭 관리의 실책만으로 유발되지는 않는다. 여러 인자들에 의해 이러한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지만, 최소한 내 실책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유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내 농장에서 연속되는 문제점이 발생 했을때는 기존의 관리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양계**

생석회 ♠ 소석회

-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 유기질 분해촉진
-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영월석회공업사

사무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번지
 전 화: (033)372-5837, 5618, 팩스: (033)372-5889
 전 화: (033)372-5296, 6878, 야간: (033)372-5293